

트럼프 “사드 10억달러 한국 부담” 대선 쟁점

〈1조1000억원〉

文 “찬성파가 빌미 제공”
安 “실제요구엔 국회비준”
洪 “세일가스 수입 대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으로 한국이 10억 달러를 부담하라는 발언이 대선판으로 불뚱이 튀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사드배치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사드배치를 자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사드 찬성파’ 후보들이 트럼프의 비용 언급에 빌미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방어막을 치고 나왔다. 동시에, 만일 비용을 실제로 요구한다면 국회 비준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미국 세일가스 수입으로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문 후보의 경우 “자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이 옳았다고 주장하면서 안 후보나 홍 후보 등 사드 찬성인정을 밝힌 후보들에게 공세를 폈다.

문 후보는 지난 30일 충남 공주대 앞에서 한 유세에서 “한국에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라는 분들이 ‘국회비준 필요 없다’, ‘무조건 찬성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돈도 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그는 “돈 요구를 보면 미국이 주한미군의 무기로 도입하려던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미국에 요구하고 부탁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정부가 비용 부담에 대해 국민에게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속인

게 아닌가 의혹도 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저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일관되게 ‘지금 찬반을 결정해서는 안 되고 새 정부로 넘겨 미국과 협상할 카드’로 갖고 있어야 한다”, ‘새 정부가 외교로 해결할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왔다”며 “새 정부가 결정하고 국비 비준 동의를 거쳐야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돈 요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후보는 이날 수원역 집중유세에서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공식 합의로 미국이 부담하게 돼 있다”며 “한미동맹은 상호존중이 우선이다. 트럼프도 한미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사드배치 찬성 입장에 바꿀 필

요는 없다는 것이 안 후보의 주장이다. 다만 안 후보 측 내에서는 이전과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안 후보 측 김근식 정책대변인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서 “10억 달러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실제로 미국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찬성 입장은 변함이 없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에서) 합의를 깬다면 절차상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후보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측의) 협상 수단”이라면 서이 문제를 풀 대안이 있다는 입장을 보

였다. 홍 후보는 이날 경기도 동두천 유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는 자세히 보면 협상하기 전에 조건을 건다. 10억 달러를 이야기하는 것도 협상 수단”이라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우리가 250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가스를 미국의 세일가스로 대체해주면 협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사드 배치를 돈 주고 안 한다는데, (그러면 미국은) 사드를 빼 가고 한국을 제외하는 ‘코리아 패싱’을 한다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안철수 딸 광주 첫 유세
지난 29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2017 빛고을 관동화’에 참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앞줄 왼쪽 두번째) 교수와 딸 설희(앞줄 왼쪽 첫번째)씨가 환하게 웃으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과 국가의 미래 위해 안철수 꼭 지지해달라”

안철수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 광주 방문 지지 호소

‘장미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딸 설희씨와 함께 다시 광주를 찾아 각계 각층의 유권자들과 만났다. 김 교수는 광주에서 열린 불교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했다.

28일 광주일보 기자와 만난 김 교수는 최근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이 아쉬웠다 는 지적에 대해 “5차 토론이어서 안 후보가 감정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 자질은 충분히 보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보이지 않는 감정을 말해달라는 주문에 “정직함이 그의 힘이고 돌파력이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고 성공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는 정직과 성실로 승부했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V3를 무료로 배포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안 후보는 투명 경영으로 안랩을 키웠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다 당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호남 민심을 믿고 해냈다.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돌파해 나간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호남 민심 흐름에 대해서는 “현장의 호남 민심은 안 후보에 대해 여전히 뜨거웠다”고 전하면서 “호남 민심은 과거 정쟁 구도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을 통해 미래로 가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의 안철수, 국민의당을 만든 것은 호남이다. 안철수의 대선 승리는 호남의 승리며, 호남의 정권 창출”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정권 창출에 실패한다면 어쩌면 이는 변화를 바라는 호남 민심이 현실 기록권 밖에 막힌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지원유세 과정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파부로 느꼈다는 김 교수는 “서민 경제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이지는 안 후보다. 희망적인 미래가 없다면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수 출신인 김 교수는 호남의 DNA에는 강인함과 정의로움이 새겨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전라도 사람이란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호남인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 호남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김 교수는 “호남이 이번 대선에서 전략적 선택을 넘어 의도적 선택에 나서야 한다”며 “호남의 딸로서 호남 민심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안 후보와 함께 나설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울 광주시민의 날 행사 5·18민주광장서 연다

20~21일 이틀간 열려

올해 광주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는 20~21일 이틀간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시민의 날 행사가 이틀에 걸쳐 열리는 것은 1965년 첫 개최 이후 처음이고,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다.

광주시는 지난 28일 5개구 자치구 관계자와 광주공동체 상생회의를 열고 행사 설명회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모두를 위한 광주’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20일 오후 민주기사의 날 대행진을 시작으로 열린다. 5·18민주광장 기념행사위원회와 함께하는 이 대행진은 5·18 당시 차량 시위 재현을 통해 5월 정신 계승과 연대를 강조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어지는 전야제는 시민과 사회단체의 자유발언과 건물 외벽에 빛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시민 화합의 장으로 이어진다.

21일에는 자원봉사 박람회 개막과 함께 시민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에서는 광주진료소가 설치된 네팔과 캄보디아 현지의 축하 영상물 상영, 인권현장 낭독, 광주발전에 기여한 시민 대상 수여 등이 있을 예정이다.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인 ‘광주시민 총회’도 이어진다.

1980년 5월, 5·18 민주광장 분수대에 세워졌던 민족 민주화 대성회를 재연한 시민총회는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위한 정책을 시민이 제안하고 설명하는 시민 대성회로 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후 5시 21분에 마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지역대학 재학 중유학생 초청 ‘남도 깊이 알기’

전남도가 1일부터 3일간 전남지역 6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34명을 초청해 ‘남도 깊이 알기’ 연수를 실시한다. ‘남도 깊이 알기’ 연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남도의 유구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중국 유학생들의 전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1일에는 도청 수리채에서 전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강연을 듣고, 섬 개발과 에너지밸리 등 도역시책을 청취한 후 F1경주장 카트체험, 농업박물관 한복 및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등에 나선다.

2일에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한국 전력공사를 방문해 ‘에너지밸리 조성사업’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남의 미래 발전동력에 대한 이해를 더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정유재판 당시 이순신 장군의 수군 본영과 진린 장군의 관왕(관우)

묘를 있었던 충무사를 방문해 한·중 간 교류의 역사를 되짚어본다. 오후에는 ‘2017 국제해조류박람회’도 방문한다.

마지막 날인 3일에는 국내 최대 녹차 생산지인 보성차원,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순천 낙안읍성, 구례 자연드림파크 등을 차례로 찾은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학별 유학생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유학생 유치 방안과, 전남도와 대학 간 지속적 협조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경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연수는 전남의 역사와 독특한 남도의 문화·예술을 중국 유학생들이 접하고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이번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전남을 주변에 홍보하고 다시 전남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zachadol@kwangju.co.kr

지자체간 협력 강화 ‘협약제도’ 도입 검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해지면 지자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협력제도의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현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수준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협력사업에 대해 ‘협약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약제도가 도입되면 협력사업에 대

한 구속력이 강화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제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행자부는 또 특정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때 구성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들이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업무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맡기는 사무 위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남뉴스

덴마크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보장
무료 청력테스트 상담점검
서울 **본사서비스**와 동일 서비스 제공

오티콘 보청기 **홈케어 서비스**
전라도, 경상도 지역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고객중심 무료 맞춤형 서비스

농성역 또는화정역 100m가량 직진 후,1층 102호로 오시면 됩니다.
광주지사 직영점 062-364-8800

oticon
PEOPLE FIRST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